

# 김현미 장관, “추석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” 강조

## 11일 기흥휴게소 교통안전캠페인서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귀향길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(수) 오후 2시 2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(부산방면)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.
  - 이번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,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,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.
- 캠페인 시작 전 ‘교통안전 결의대회’에서 김 장관은 ‘교통악습의 벽 부수기’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추석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.
  - “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6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”면서, “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, 안전속도를 지키고, 졸리면 쉬어가고,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기만 하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  - 아울러, “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67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교통량 증가, 기상악화 등을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추진 중”이라고 밝혔다.
  - 또한, “추석 명절 최고의 선물은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, 이웃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항상 안전운전을 해주시길” 당부하면서, “가족,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한다”고 전했다.

- 김 장관은 이어진 캠페인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껌, 생수 등 **졸음운전 방지용 물품**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,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**홍보물**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하였다.
  
- 이와 함께, 한국교통안전공단·한국도로공사에서 귀성객의 안전한 귀행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, 에코드라이브 및 안전띠 착용 시뮬레이터 등 시민 참여 공간도 마련하였다.

2019. 9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